

일부 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생활양식에 관한 융합연구 -치위생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선행

삼육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Convergence Study on Job Value and Lifestyles in Some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dental hygiene students-

Seon-Haeng Shin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ahmyook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생활양식과 직업가치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올바른 직업가치관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지역의 치위생과 재학생 23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독립표본 평균검정, 일원 배치 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생활양식 수준은 3.27, 직업가치관 3.77이었고,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높았다($p < 0.05$). 여자에서 도전·모험, 가족중심 생활양식이 높았으며($p < 0.05$). 생활양식과 직업가치관과는 상관성이 있었다($r = 0.245$, $p < 0.01$). 대학생들의 생활양식이 직업가치관에 긍정적 의미를 지닐 수 있기 위해서는 직업가치관 관련 교육을 비롯하여 진로 적성 검사, 개별 상담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직업가치관, 생활양식, 대학생, 융합, 치위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basic data for the formation of a correct job value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s and their job value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37 dental hygiene students in Seoul city from September 1 to 30, 2018.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regression analysis. There were lifestyles(3.27), job value(3.77) in subject. The faster birth order, the higher tended to have the internal job value($p < 0.05$). The challenge-adventure, family-oriented lifestyles were higher in female($p < 0.05$). In order for college students' lifestyles to have a positive meaning on job values, it is necessary to apply job values education, career aptitude tests, and application of individual counseling programs.

Key Words : Job value, Lifestyles, University students, Convergence, Dental hygiene

1. 서론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서 직업세계는 매우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직업은 생계유지

를 위한 수단 이외에도 자아실현, 사회봉사의 역할까지 해내고 있어서 직업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보람이나 행복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통계청 자료[1]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Health University Academic Research Fund in 2019.

*Corresponding Author : Seon-Haeng Shin(haeng5355@hanmail.net)

Received October 22, 2019

Revised December 3,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15-24세)은 2017년 10.3%, 2018년 10.5%, 2019년 1분기 기준 11.7%로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비정규직, 직장 포기자 등을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는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직업이라는 사회활동 입문을 준비한다. 학령기를 통하여 대학생들은 자신의 직업관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2].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대학 선택의 다양화, 청년실업 증가 등 사회적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급변 현상들은 심리적 사회적으로 불안한 청소년들의 직업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들의 생각이나 판단의 기준 등 가치 체계를 잘 알고 이해를 하여야 한다.

생활양식은 개인의 가치관, 정서, 자아 개념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생활 활동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로 생활양식이 급속히 변화하여 다양화되어가면서 가치체계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케 하여준다[3]. 청소년기의 일상생활은 인터넷, 휴대전화, 사이버 통신매체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4,5]. 이와 같이 청소년의 의식, 태도, 행동을 결정하는 가치관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생활양식의 변화까지도 초래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치관은 그들의 의식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사회,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또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치위생 학생들의 취업은 치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요구 증가, 경기 침체, 의료시장 개방 압력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전공관련 교내교외실습을 통하여 전문기술직이 되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시험을 비롯하여 전문직에 필요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라는 당면 과제로 취업에 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6]. 최근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의 급변화로 인하여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양식을 파악하여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은 구강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 학생들의 직업가치관과 일상생활양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올바른 직업가치관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치위생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하기 전에 개인 비밀 보장, 연구목적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후에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선정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0.15(0.02), 검정력 0.95(0.90), 유의수준 0.05로 하여 최소 표본 수 153명이 산출되었으나 미회수율과 탈락률을 고려하여 23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5문항, 직업가치관 10문항, 생활양식 25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직업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김[7]이 사용한 연구도구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직업가치관, 생활양식에 대한 문항 평가 방법은 각각 리커트(Likert)의 5점 등간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하였다. 직업가치관과 생활양식의 Cronbach's α 는 0.804, 0.791 이었다.

2.3 자료분석

자료는 IBM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가치관, 생활양식은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생활양식 각각의 차이 분석은 독립 표본 평균 검정과 일원 배치 분산분석, Scheffé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 간의 분석을 위해서 피어슨 상관분석, 직업가치관, 생활양식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5.1 %, 여자 96.9%, 학년별로는 1학년 37.6%, 2학년 30.8%, 3학년 31.6%이었다. 출생 순위는 첫째 38.4%, 둘째 51.9%, 셋째 이상 9.7%이었고 종교 유무에서는 '있다' 28.7%, '없다' 71.3%, 한 달

용돈은 '30만 원 미만' 57.0%, '30만 원 이상' 43.0%를 나타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37)

Characteristics	Division	N(%)
Gender	Male	12(5.1)
	Female	225(94.9)
Grade	1	89(37.6)
	2	73(30.8)
	3	75(31.6)
Birth order	First	91(38.4)
	Second	123(51.9)
	≥ Third	23(9.7)
Religion	Yes	68(28.7)
	No	169(71.3)
Month income	< 30	135(57.0)
	≥ 30	102(43.0)

3.2 연구 대상자의 직업가치관, 생활양식

본 연구 대상자의 직업가치관, 생활양식 수준은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직업가치관의 전체 평균은 3.85±0.55로 조사되었고, 하부 영역 요인으로 외재적 직업가치관 3.77±0.68, 내재적 직업가치관 3.88±0.63으로 내재적 직업가치관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생활양식 전체 평균은 3.31±0.44로 조사되었고, 하부 영역 요인으로 가족중심 3.41±0.85, 유행추구 3.37±0.79, IT몰입 3.27±0.75, 도전·모험 3.18±0.94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stribution of job value (N=237)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SD
Job value		3.85±0.55
	External job value	3.77±0.68
	Internal job value	3.88±0.63
Lifestyles		3.31±0.44
	Fashion	3.37±0.79
	IT devotion	3.27±0.75
	Challenge+adventure	3.18±0.94
	Family-oriented	3.41±0.8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의 분포는 Table 3과 같다. 성별 분포에서는 남자 3.75±0.63, 여자 3.84±0.53이었고, 학년에서는 1학년 3.85±0.54, 2학년 3.87±0.50, 3학년 3.78±0.57 이었다. 출생순위로는 첫째 3.85±0.55, 둘째 3.87±0.54, 셋째 이상 3.59±0.43이었고, 종교 유무에서는 '있다' 3.84±0.58, '없다' 3.83±0.52로 나타나 집단 간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직업가치관의 하부 영역 요인별 분포를 살펴보면,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남자 3.63±0.77, 여자 3.78±0.67, 내재적 직업가치관은 남자 3.80±0.71, 여자 3.86±0.59로 남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출생순위별로는 첫째 3.85±0.55, 둘째 3.87±0.54, 셋째 이상 3.59±0.43이었고,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첫째 3.73±0.65, 둘째 3.82±0.70, 셋째 이상 3.68±0.61 이었으며 내재적 직업가치관은 첫째 3.90±0.60, 둘째 3.89±0.59, 셋째 이상 3.55±0.53으로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긍정적 직업가치관이 높아지는 경향이었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 검증결과 첫째가 셋째 이상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종교 유무, 한 달 용돈에 따른 직업가치관은 집단 간에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양식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체 생활양식을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다, 성별에서는 남자 2.95±0.48, 여자 3.29±0.43으로 남자보다 여자에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에는 1학년 3.31±0.49, 2학년 3.29±0.40, 3학년 3.21±0.40 이었다. 출생순위로는 첫째 3.31±0.43, 둘째 3.28±0.45, 셋째 이상 3.20±0.39이었고, 종교 유무에서는 '있다' 3.29±0.76, '없다' 3.27±0.44으로 나타나 집단 간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 달 용돈별로는 '30만 원 미만' 3.20±0.43, '30만 원 이상' 3.37±0.4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전체 생활양식의 하부 영역 요인별 분포를 살펴보면, 유행추구는 남자 2.73±0.72, 여자 3.37±0.69(p<.01)이었고, 종교 유무에서는 '있다' 3.19±0.71, '없다' 3.44±0.81(p<.05)로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년, 출생순위, 한 달 용돈에서는 집단 간에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IT 몰입

생활양식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1학년에서, 출생 순위 첫째에서 종교가 있는 집단에서 다소 높았으나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도전·모험 생활양식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 출생순위 셋째 이상, 종교가 있는 집단, 한 달 용돈이 30만 원 이상 집단에서 다소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가족 중심 요인에서는 남자 2.90±0.63, 여자 3.41±0.79($p<.05$)로 남자보다는 여

자에서 높게 나타났고, 한 달 용돈 30만 원 미만 3.28±0.76, 30만 원 이상 3.52±0.82($p<.05$)로 30만 원 이상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년, 출생순위, 종교 유무에서는 집단 간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Table 3. Job valu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s	Division	Job value	External job value	Internal job value
Gender	Male	3.75±0.63	3.63±0.77	3.80±0.71
	Female	3.84±0.53	3.78±0.67	3.86±0.59
	t or F (p-value)	0.073 (0.603)	0.163 (0.473)	0.232 (0.746)
Grade	1	3.85±0.54	3.76±0.70	3.89±0.58
	2	3.87±0.50	3.77±0.66	3.91±0.58
	3	3.78±0.57	3.80±0.66	3.77±0.62
	t or F (p-value)	0.581 (0.560)	0.071 (0.931)	1.223 (0.296)
Birth order	First	3.85±0.55	3.73±0.65	3.90±0.60 ^a
	Second	3.87±0.54	3.82±0.70	3.89±0.59 ^a
	≥ Third	3.59±0.43	3.68±0.61	3.55±0.53 ^b
	t or F (p-value)	2.688 (0.070)	0.621 (0.539)	3.513 (0.031)
Religion	Yes	3.84±0.58	3.74±0.77	3.89±0.65
	No	3.83±0.52	3.79±0.64	3.85±0.65
	t or F (p-value)	2.654 (0.871)	2.972 (0.604)	3.511 (0.644)
Month income**	< 30	3.84±0.58	3.76±0.71	3.87±0.64
	≥ 30	3.83±0.47	3.78±0.63	3.85±0.54
	t or F (p-value)	53945 (0.947)	2.012 (0.826)	4.838 (0.844)

The da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a,b The same characters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é test

Table 4. Major selection motiv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s	Division	Lifestyles	Fashion	IT devotion	Challenge- adventure	Family-oriented
Gender	Male	2.95±0.48	2.73±0.72	3.27±0.68	2.97±0.79	2.90±0.63
	Female	3.29±0.43	3.37±0.69	3.23±0.61	3.19±0.95	3.41±0.79
	t or F (p-value)	0.019 (0.009)	0.372 (0.002)	0.130 (0.821)	0.079 (0.458)	1.351 (0.030)
Grade	1	3.31±0.49	3.42±0.74	3.27±0.61	3.42±0.74	3.42±0.74
	2	3.29±0.40	3.43±0.85	3.20±0.60	3.43±0.85	3.43±0.85
	3	3.21±0.40	3.29±0.79	3.22±0.62	3.29±0.79	3.29±0.79

Birth order	First	3.31±0.43	3.11±0.88	3.31±0.60	3.11±0.88	3.34±0.85
	Second	3.26±0.45	3.14±0.79	3.23±0.62	3.14±0.79	3.45±0.76
	≥ Third	3.20±0.39	3.26±0.83	2.96±0.57	3.26±0.83	3.17±0.72
Religion	Yes	3.29±0.42	3.19±0.71	3.32±0.66	3.32±0.78	3.39±0.76
	No	3.27±0.44	3.40±0.70	3.20±0.59	3.07±0.84	3.38±0.81
	t or F (p-value)	0.122 (0.681)	0.030 (0.046)	1.279 (0.191)	0.211 (0.034)	0.586 (0.918)
Month income**	< 30	3.20±0.43	3.26±0.74	3.20±0.63	3.06±0.87	3.28±0.76
	≥ 30	3.37±0.43	3.43±0.64	3.27±0.58	3.25±0.77	3.52±0.82
	t or F (p-value)	0.691 (0.004)	1.095 (0.068)	0.764 (0.375)	0.733 (0.094)	0.778 (0.021)

* p-value by t-test or one-way ANOVA
 ** Month income unit: ten thousand

3.5 직업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직업가치관과 생활양식과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여자인 경우 직업가치관과 생활양식($r=0.245$)이 상관성이 있었다. 하부 영역 요인으로는 내재적 직업가치관과 유행추구($r=0.182$), 도전

·모험($r=0.236$), 가족중심($r=0.162$)과는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재적 직업가치관과 IT몰입($r=0.149$)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Variables	Lifestyles	Fashion	IT devotion	Challenge- adventure	Family-oriented
Gender	-0.169**	-0.196**	-0.002	-0.046	-0.146*
Job value	0.245**	0.180**	0.130*	0.221**	0.172**
External job value	0.161*	0.101	0.149*	0.110	0.099
Internal job value	0.256**	0.182**	0.085	0.236**	0.162*

The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p < .05$ ** $p < .01$

3.6 생활양식에 대한 회귀분석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이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양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적합한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 .001$), 모형 설명력은 11.8%로 나타났다. 선정된 독립변수들 중에서 생활양식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p < .001$), 연령($p < .01$), 내재적 직업가치관($p < .01$) 이었다. 즉, 여자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내재적 직업가치가 높을수록,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gression analysis for Lifestyles

Variables	Lifestyles				
	B	SE	β	t	p-value*
Gender	0.169	0.052	0.223	3.252	0.001
Age	0.027	0.010	0.168	2.661	0.008
Birth order	-0.035	0.048	-0.046	-0.731	0.466
External job value	0.167	0.053	0.219	3.180	0.002
Internal job value	0.040	0.048	0.056	0.835	0.404
R ² = 0.118 Adjusted R ² = 0.098 F= 6.132 P=<0.001					

* p-value by regression analysis at $\alpha=0.05$

4. 고찰

직업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세계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자아실현, 사회봉사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좌우하는 척도이기도 하다[8]. 최근 경제 위기로 비롯된 사회적 불안정은 청년 실업률과 함께 대학 사회까지 파급되어 가치관 정립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의 학업, 진로, 취업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직업가치관과 관련 변인으로 생활양식을 제시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가치란 인간의 행동을 조절하고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로서, 개인이나 집단 혹은 사회가 옳다고 또는 바람직하거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원리들이다[9]. 직업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직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무엇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나타낸다[10].

연구 대상자의 직업가치관에 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성별간에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직업가치관은 5점 만점 중 평균 3.85 ± 0.55 이었고, 하부 영역 요인으로 외재적 직업가치관 3.77 ± 0.68 , 내재적 직업가치관 3.88 ± 0.63 으로 내재적 직업가치관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 김[7]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보였는데 이는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외형보다는 자신의 성취감, 자기개발, 적성, 열정 등을 고려한 내재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에 있어서는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내재적, 외재적 직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전의 여러 연구보고[7,11,12]와 비교적 유사하였다. 직업관은 대체로 청소년기에 형성되어 변하지 않은 경향이 있으므로 올바른 직업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전공 선택시 진학 자체에만 목표를 두기 보다는 개인의 성향 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등 주변 환경이 서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생순위별 차이를 살펴보면, 내재적 직업가치관은 셋째 이상보다는 첫째에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동료 관계, 보람, 열정, 자기개발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김[7]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 이는 한 가정, 한 자녀라는 가족구조에서 대학생들의 경제적 안정성, 자기개발 등 내재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대상자의 종교 유무에 따라서는

내재적 직업가치와 외재적 직업가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생활양식은 한 개인이 살아가는 독특한 생활방식으로서 어떻게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 해결점을 찾아내어 목표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결정해 주는 무의식적인 신념체계라 할 수 있는데 [13], 이는 일시적인 태도와 행위가 아닌 인습적이고 고정된 개인 생활형태의 복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14].

연구 대상자의 생활양식에 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전체 생활양식은 평균 3.31 ± 0.48 이었고, 하부 영역 요인으로는 가족중심 3.41 ± 0.85 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도전모험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보다 여자에서 전체 생활양식, 유행 추구, 가족 중심 생활양식에서 높게 나타났고, 종교 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집단보다는 종교가 없는 집단에서 유행 추구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시대의 변화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고 있고, 가족 중심의 여행, 외식, 대화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직업가치관, 생활양식의 관련성을 평가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하위 영역인 내재적 직업가치와 도전모험 생활양식 간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성취감, 보람, 열정, 자기개발, 적성 등을 중요시하는 내재적 직업가치가 높을수록 도전모험 생활양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어[15]의 연구보고와 일맥상통하였다. 여자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내재적 직업가치가 높을수록,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 적성 검사나 개별 상담, 취업관련 교육 등 취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양식이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생활양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여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높을수록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표본의 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이라서 일반화하기 어렵고, 연구 도구의 차이로 인한 정확성 결여,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하여 명확한 결론을 얻기는 어려웠으므로 연구의 일반화를 위

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재확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생활양식과 직업가치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올바른 직업가치관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 대상자의 생활양식 수준은 3.27, 직업가치관 3.77 이었다.
2.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3. 남자보다 여자에서 도전모험, 가족중심 생활양식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4. 종교가 없는 집단에서 유행추구 생활양식이 높아 유의하였다($p < .05$).
5. 생활양식과 직업가치관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6. 여자인 경우 연령이 낮고, 내재적 직업가치가 높을수록,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의 생활양식이 직업가치관에 긍정적 의미를 지닐 수 있기 위해서는 직업가치관 관련 교육을 비롯하여 진로 적성 검사, 개별 상담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직업가치관 형성의 주체적 책임은 본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http://kosis.kr>.
- [2] Y. J. Heo. (2018). *A Study on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Work Values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 [3] H. J. Kim. (2001). *A Study on Life-style and Rationality of Consumption Behavior of Adolescent Consumers(Focused on clothing)*. Konkuk University, Seoul.
- [4] B. J. Suh & M. J. Kim. (2010).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fluence of Daily Life Stress on Group Home and teenagers from conventional families in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Journal of Furture Oriented Youth Society*, 7(4), 1-29.
- [5] S. N. Cho & O. K. Yoon. (2000).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Values and Lifestyle among Generations.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5, 103-135.
- [6] S. H. Shin. (2015). Effect of part-time employment experience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6), 1033-1041.
- [7] Y. M. Kim. (2008).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Values on Their Lifestyles*. Doctoral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Seosan.
- [8] Y. H. Lee & K. H. Ahn. (1998). A Study on the Types of Work Values of the Juni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25(3), 51-67.
- [9] H. W. Kong. (2010). *(A)Study on the Effects of Values, Consumption Values, Environment Conscious Behavior on Consumer's Attitude and Purchase Behavior of Environment-friendly good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10] S. H. Shin. (2017). A Study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motive to select dental hygiene as major and their work valu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7(5), 853-864.
- [11] I. H. Lee. (1997). *A Study on the view of vocation and the career sense of junior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Taegu.
- [12] H. W. Lim. (2006). *A Study on the Effect of part-time work experience on work value of adolescents -Focusing on high school students in yongin city-*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Yongin.
- [13] *Naver*. <https://terms.naver.com>.
- [14] H. N. Jung & J. T. Lim. (2008). A Study on the Lifestyle and Health Status of Preschool

Teachers, *Journal of Child Educare*, 14, 19-33.

- [15] Y. K. Eo. (2008). Factors to deci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rinsic or Extrinsic Work Values : Sex, Career Maturity,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2, 119-141.

신 선 행(Seon-Haeng Shin)

[정회원]



- 1989년 2월 : 경북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석사)
- 2005년 2월 : 경북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01년 3월~현재 : 삼육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법규, 치과보험, 구강보건
- E-mail : haeng5355@hanmail.net